

범여권 통합 어떻게 되나

민주發 '배제론'에 대통합 '주춤'

박상천 대표 "이념 다른 사람과 못 합친다" 우리당 제외 민주-통합신당 연대 모색할 듯

과격으로 치닫던 한나라당 내분 사태가 극적으로 봉합되자 정치권의 관심은 이제 범여권 대통합에 쏠리고 있다. 특히, 호남이라는 확실한 지역 기반과 참여정부의 국정 실패 책임 논란에서 자유로운 민주당은 범여권으로부터 경쟁적인 구애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색깔 배제를 모토로 한 통합에 우선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통합의 실타래는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그러나 박 대표가 제시하고 있는 통합 배제 세력은 열린우리당 대권주자 그룹은 물론 상당수의 여당 인사들이 포함된다.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민주당은 범여권에서는 박 대표의 통합 구상은 결국 민주당 중심의 통합신당 창당이며 오히려 범여권 대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당내외의 비판에도 박상천 체제의 민주당은 여당 탈당 그룹이 만든 통합

신당 측과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부 의원, 5월 말께 탈당할 예정인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함께 통합신당 창당에 나선 것으로 전망된다.

◇범여권 통합 전략=박 대표의 구상에 대해 범여권은 '빨심 통합'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공식 반응에서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당의 특정세력 배제론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부으며 사실상 '박상천 고립 작전'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열린우리당의 반응에 비해 여당 탈당 의원들로 구성된 통합신당 측에서는 약간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을 일방적으로 자각하기보다는 일단 이견을

좁혀나가는 데 주력하며 통합 협상에 나서겠다는 태도다.

이를 반영하듯 통합신당 강봉균 통합추진위원장은 15일 "대통합에서 배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이념 성향을 분명하게 노출한 소수 인사를 제외하고 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범여권은 민주당-통합신당-여당 탈당파를 주축으로 한 통합 그룹과 친노 그룹이 포진한 열린우리당이 당분간 각개약진 양상을 보이면서 대선 막판에 이르러 후보 단일화 및 선거 연대를 모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동철, 지병문, 강기정(오른쪽부터) 의원 등 열린우리당 광주지역 국회의원 3명이 15일 오후 광주 프라다호텔에서 박상천 민주당 대표의 '특정인 배제론'에 반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범여권 의원 3~4명 대상

'박상천 살생부' 거론 인사

민주당이 범여권 대통합과 관련, 특정 세력 배제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범여권 의원 가운데 누가 '배제 대상'에 포함될 것인가를 놓고 지역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박상천 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통합 배제 세력으로는 참여정부에서 총리나 장관을 지내면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국정 실패 세력과 좌 편향 진보 세력, 일부 강경 친노 세력 등이다.

그러나 박 대표가 제시한 배제 기준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광주·전남 지역 범여권 의원 가운데 배제 대상으로는

3~4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일단 참여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C의원은 국정 실패 세력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반적인 평가다.

여기에 보안법 폐지, 사회법 개정 등 17대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각종 법안 및 정책에서 강경 입장을 보이며 목소리를 높여왔던 J, K 의원 등도 일단 배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의원들이 사회적 갈등을 빚었던 일부 정책 및 법안 등에서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더라도 좌 편향 진보세력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서갑원(순천시), 염동연 의원(광

■'박상천 살생부' 거론인사

국정실패세력	친노세력	좌파진보세력
이해찬, 한명숙, 정동영, 김근태, 원정배, 유시민	신기남, 김혁규, 윤시민, 이광재, 이철영, 배원우, 김태년, 김형주 등	김근태, 계파 및 친정배, 계파론 분류되는 의원들

* 표 안에 있는 인물은 추정한 것.

주 서 갑)은 친노 직계로 분류되지만 최근의 행보를 감안할 때 민주당이 배제 대상으로 선언한 강경 친노세력에 포함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염동연 의원은 대통합을 위해 선도 탈당에 나선 데다 서갑원 의원도 대통합을 내세우며 강경 친노 세력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오하러 "노 대통령이 시대 정신"이라고 주장했던 이영호 의원(강진·안동) 등이 강경 친노 세력으로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역 민심 거역 말라" 우리당 의원들 박대표 비난

지병문, 김동철, 강기정, 정동채 의원 등 열린우리당 광주지역 의원들은 15일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며 분열을 조장하며 '화풀이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들은 이날 오후 광주 프라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표가 소통함으로 역사의 발전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어 "박 대표는 '분당, 정책실패 책임자는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판단 여부는 국민의 몫이지 박 대표가 자의적, 독선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안 아니다"며 "박 대표는 대통합을 원하는 광주·전남 시·도민의 민심을 거역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월 광주'는 한국 '정치수도' 대선주자·당 지도부 총출동

5·18 광주민중항쟁 기념일을 전후해서 대선 주자와 각 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이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를 잇따라 방문, '5월 광주'가 한국 정치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과 범여권 주자들은 대선의 해를 맞아 5·18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면서 광주를 방문, 대선 승리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이응섭 건교부 장관, 김중민 문광부 장관 등 행정부 핵심 장관들도 5·18 기념식에 참석하고, 지역현안 사업 현장도 둘러볼 예정이다.

◇대선 주자=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는 17일 오전 고흥 소록도병원 개원 91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오후에는 순천에서 열린 '심진강 포럼'에서 초청 특강을 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4시에는 5·18 묘지를 참배한 뒤 상경한다. 이명박 전 서울 시장은 지난 12~13일 광주를 찾아 5·18 묘지를 참배했다.

특히 손 전 지사와 김근태·정동영 전 의장 등은 18일 오후 2시 광주 CGV극장에서 열리는 영화 '화려한 휴가'의 제작 발표회에 함께 참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생정치모임을 이끌고 있는 천정배 의원은 17일 오후 광주를 찾아 5·18 전야제를 시민과 함께하고 18일 오전에는 5·18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17일 오후 4시 전남대 평생교육원 초청 강연을 한 뒤 이날 밤 광주 급남로에서 열리는 전야제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한 전 총리는 또 18일 5·18기념식에 참가한 뒤,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다.

친노 계열의 김두관 전 행정부 장관은 18일 5·18 기념식에 참석한 뒤 오후에는 윤상원 열사 생가를 방문하고 전남대에서 열리는 '민주, 인권, 평화의 밤' 행사에서 만찬을 할 계획이다.

◇정치권 중요 인사=김영삼 전 대통령이 5·18기념재단, 5·18 유족회 등 5월 단체 초청으로 오는 22일 광주를 방문한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에 도착한 뒤 5·18 묘지를 참배한 뒤 5·18 관련 단체로부터 1995년 '5·18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감사패를 받을 예정이다.

임재정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5·18 묘지에서 열리는 추모제에 참석한 뒤 지역 국회의원 등과 오찬을 함께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추미애 전 의원도 오랜 침묵을 끝내고 5·18 행사기간 동안 광주를 방문, 정치 행보를 본격화한다. 16일 오후 전남대에서 강연을 한 뒤 17일에는 지지자들과 함께 5·18 묘지를 참배한다.

◇주요 정당 지도부=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모두 당 지도부가 17~18일 광주를 방문, 5·18 기념식에 참석하거나 공동 참배를 한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17일 오후 광주를 방문, 광주시당 핵심당원들과 만찬을 한 뒤 다음날 5·18 기념식에 참석한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당 지도부, 국회의원 등과 함께 17일 오후 4시30분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다.

중도개혁통합신당 김한길 대표도 당 지도부와 함께 18일 오전 5·18 기념식에 참석하고 지역 창당 주역 인사들과 오찬을 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심상정·권영길 의원 등 대선 예비후보는 17일 오후 2시 공동으로 5·18 묘지를 참배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손학규 민심 잡기 YS, 5·18 묘역 첫 참배 추미애, 정치활동 재개

범여권 대선주자들의 발걸음은 더욱 분주하다. 지난 93년 이후 매년 5·18 기념식을 찾았던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17~19일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다. 손 전 지사는 17일 오후 조선대 사회과학대와 조선대 평생교육원에서 특강을 할 예정이다. 이어 18일 오전 5·18 기념식에 참석한다. 손 전 지사는 광주 방문을 통해 지역 원로와 주요 인사를 잇따라 접촉하는 등 '인물 대장정'의 시동을 걸겠다는 각오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은 17일 오전 광주를 방문, 오전 5·18 추모제에 참석한 뒤 오후에는 YWCA가 주최하는 오월 Y시민포럼에서 특강을 한다. 18일 오전 5·18 기념식에 참석한 뒤, 오후에는 5·18 기념재단 주최의 국제인권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한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전 의장은 17~18일 광주를 방문한다. 김 전 의장은 17일 낮 5·18 희생자 어머니 모임인 '오월어머니집' 회원들과 오찬을 한 뒤 오후에는 '주먹밥 나누기' 등 각종 5월 행사를 체험·참관한다. 김 전 의장은 또 이날 밤 5·18 전야제, 18일 오전 5·18 기념식에 각각 참석하고 재야 원로들과 오찬도 함께한다.

BORYUNG
보령제약

50
BORYUNG
A healthy society is the only dream of Boryung
보령 창업 50주년

칼칼한 목을 시원하게~
용각산 쿨

목이 칼칼할 땐, 용각산 쿨!

황사, 매연, 미세먼지로 인해 목이 답답하고 칼칼할 땐 용각산 쿨입니다.
물 없이 먹는 과일, 용각산 쿨은 칼칼한 목에 직접 작용합니다.

칼칼한 목을 시원하게~용각산 쿨!

▶ 기관내부에서의 점액 분비 증가와 섬모운동 촉진으로 가래를 제거해줍니다.
▶ 신맛하고 시원한 복숭아향과 민트향, 두가지 향이 있습니다.
▶ 물 없이 먹는 과일이라 휴대가 간편하고 먹기 편합니다.

용각산 쿨 TV-CF

※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의 주의 사항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심의필: 908-0500